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태원준
외
지음



작은 다정함이 바꾸는
세상의 온도

일러두기

* 《국민일보》의 〈아직 살 만한 세상〉 코너에 기사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쓰면서 각 사연의 당사자분들께 책 출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알려졌던 사연 속 당사자를 찾아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①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몇몇 분께는 양해를 구하며, 이 지면으로^②나마 감사를 전합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① 最終子?
② (不)着 是 有 的 於 許 容 相 似 的 處 理 : ~도, ~도, ~도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태원준 외 지음



RHK
일명(이)치(이)리(이)

- ① ^{아직 살 만한 세상, 사악하고 어두운 / 2017년 2월 11일}
- ② 고단하다 (辛苦 疲勞의 体が 疲 れて いる)
- ③ ^{おどろきあわてること}

덕분에 엄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상태를 살피며 갈 수 있었다. 아이가 보채다 신발이 벗겨졌을 때 주워서 신겨준 사람도, ^{迂路曲折} 우여곡절 끝에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유모차에 앞서 출구로 향하며 길을 터준 사람도 이름 모를 승객이었다. ②

2018년 3월 13일 저녁, 엄마는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어느 ^{その日 18時 20分頃}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었다. "아기 신발 주워주신 분, 아까는 경 황이 없어 손만 보고 인사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아침 엄마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정과 타도 될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출근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에 탔을 때 ^{目撃者} 낯이 붉어 눈총을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을 테니까. ②

지하철 승객들은 엄마의 걱정을 ^{5分間の心配} 기우로 바꿔놓았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뜻밖의 장면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아이의 엄마가 인터넷에 접속했듯이 그런 모습을 접한 이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요즘 세상이 ^{世の中} 좀 팍팍하지만 이런 일도 있더라, 이래서 아직 살 만하다는 것 같더라……. ④

〈아직 살 만한 세상〉은 그래서 시작됐다. 고단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마음에 입은 상처로 힘겨운 이들에게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국민일보》의

〈아직 살 만한 세상(이하 '아살세')〉속 이야기는 소소하고 주인공은 평범하다. 뉴스에 나올 법하지 않은 사람들의 뉴스일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³²² 차곡차곡 적다 보니 제법 쌓였다. ⑤

어느샌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윗집에 이런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하는 ^{6455 情報投稿}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마치 이 소소한 이야기가 세상의 ^{小技} 결간지를 넘어 줄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듯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비범한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의 평범한 선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이 책을 통해 작은 위로의 말들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7分間の心配 目撃者}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한다. ⑥

《국민일보》아살세팀

프롤로그_ 봄을 닮은 사람들

1. 그때 그 말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13 퇴근길 4호선의 위로 17 마지막 비행 22
 버스커의 편지 26 회사의 잘못 29 아까운 도시락 33
 비와 치킨 사이 37 그깃 생활기록부 41

2. 작은 손길이 오랫동안 빛나는 순간

우중동행 雨中同行 49 정류장 앞 핫도그 51 배달 가는 길 54
 1초의 기적 57 사소한 배려 60 휴게소의 영웅들 65
 왕따와 흡수저 69 청년의 하루 75 함께하는 식탁 80
 첫 생리 86 통화 중에 끼어든 청년 89 마지막 사진 93

3. 가족이라는 이름

병든 엄마가 준 것 99 엄마의 맞춤법 102 엄마의 댓글 106
 동승자가 있는 택시 109 위키와 함께한 귀농 112 딱 한 시간 117
 절대 끝나지 않는 120 열두 번 바뀐 주소 124
 38년 만의 일주일 129 다시 가족 133

4. 벽 하나를 넘으면

803호 할아버지 139 문고리에 걸어둔 마음 144 아이들의 세상 148
 엘리베이터에서 생긴 일 151
 꽃보다 우산 157 사는 것, 사는 곳 162
 경비원이 아프면 아파트가 아프다 166 불쑥 내민 작은 손 172

5. 디지털 시대의 사랑

12월 17일 177 그래도 크리스마스 181 계속 울린 전화 185
 드림을 부탁해 188 제복을 입은 챔피언 192
 나중에 뭐가 될래? 196 노랑머리를 찾습니다 199
 택시기사의 봉투 205 완벽한 거래 208
 비누 꽃과 편지가 닿는 곳 213 중고폰을 위한 첨단 기술 222

6. 다정한 타인들

차를 긁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229 나비효과 233 미행 236
 다리 위에 선 사내 242 혐의점 없음 247 더럽고 아름다운 밤 251
 예비 의사, 예비 간호사 254 뜻밖의 선물 258 해변의 커플 264
 구급차의 교통사고 267 어느 날 문득 272

7. 코로나19를 이길 '우리'

면역체계 281 별거 아닌 286 매진 행렬 290 건물주의 품격 293
 사투 298 마중 나온 의사 304 마침 오늘 적금 탔어요 307

에필로그_ 어두운 겨울을 지나

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A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증인과 참고인이 보태는 말까지 더해 그 모든 이야기를 ^{후에} 끝내는 판사가 듣는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A씨에게 판사는 재판 과정 자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한마디는 죄와 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A씨의 삶에 대한 뜨거운 격려였다.

퇴근길 4호선의 위로



“다음 역은 동작, 동작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을 지나는 지하철에는 퇴근길 승객이 잔뜩 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열차가 이촌역을 지나 동작대교를 반쯤 건넌을 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평소 듣던 녹음 방송이 아닌, 승무원의 육성이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신고 가겠습니다. 남은 하루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 2019년 6월 11일



힘겨운 일상은 시간의 흐름도 왜곡하는지, 1년은 참 빨리
가는데 하루는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그런 하루를 보낸 이들
에게 얼굴 모를 승무원의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다.

그 열차에는 성균관대에 다니는 스물두 살 신 씨가 타고 있
었다. 요즘 청년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안다. 창밖으로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다 방송을 들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울
교통공사에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 덕분에 상쾌하게 집
에 간다”라는 감사 문자를 보냈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
속해서는 “지하철에서 울 뻔했다”라고 글을 남겼다.

덧글이 여럿 달렸는데 신 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
지 않았다. “나도 그 방송을 들은 적 있다”거나 “저녁에 그분
열차를 타면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
졌다.

글을 보고 연락한 기자에게 신 씨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걱정해 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니까 아는 사람의 응원보다
더 힘이 났다. ‘맞아. 다들 열심히 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 “한강을 바라
보며 그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4호선 지하철이 서울 도심 아래에서 유일하게 땅 위로 나
오는 때가 한강을 건널 때다. 단조로운 지하 구간에서 휴대전

화만 쳐다보던 이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특히 ^{이제야} 해 질 녘의 한강은 아름답지만 ^{타이밍이} 웬지 스산하기도 해
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의 회로가 저절로 돌아간
다. 바로 그 시점에 승무원은 안내방송 스위치를 올린 것이다.

^{공중교통} 대중교통 하차 방송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챙
기라”라는 문구가 공식처럼 들어가는데, “속상한 건 모두 두고
내리라”라고 뒤집어서 “제가 다 신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문장
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을 때 꺼낼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아
니다. 하루 중 언제 방송을 해야 할지, 어디서 스위치를 올려
야 할지, 마이크에 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승무원은 많은
시간을 들여 깊이 고민했을 게 분명했다.

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거지 하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걱정이 맴도는, 기이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공연을 마치고 서둘러 쓴 편지에는 버스커의 그런 복잡한 심경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데뷔하는 이에게 보여준 관객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달래준 버스커의 편지. 누군가의 지독한 하루가 어떤 이에게 뜻하지 않은 응원이 됐고, 그것은 다시 뜻밖의 위로가 돼서 돌아왔다. 힘겨운 일상에 오아시스 같은 우연이 가끔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회사의 잘못



해마다 기업 채용 시즌이 되면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에는 "합격 문자 받으면 여기에 알려달라"라는 글이 여럿 올라온다. 나에겐 아무 연락이 없는데 누군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나는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남의 합격을 통해 나의 탈락을 확인하는 잔인한 상황은 불합격 통보에 인색한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됐다.

2019년 취업 준비생 2명 중 1명은 응시한 기업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입사 지원 경험자 1,862명에게 물었더니 51.5퍼센트는 최종면접 후에도 탈락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무작정 기다리자니 피가 마르고, 회사에 전화하자니 불합격일 때의 민망한 상황이 꺼려져

차라리 합격자 동향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2017년 10월 금호석유화학의 채용 담당자가 서류 전형 탈락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이런 ^{고충을 겪던 취업 준비생} 고충을 겪던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 ①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후 연락드리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귀한 시간 ^{내어} 금호석유화학그룹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는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이번 서류 전형 결과 보고드립니다. 총 4,611명이 지원해 주셨고 그중 760명이 인·적성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원자께서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여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 올림.”

지원자와 합격자 수를 공개한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탈락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탈락한 이유인데, 그것을 일부나마 가늠할 수 있는 경쟁률을 밝혔다. 불합격을 통지하게 된 이유로 더 많은 인원을 뽑지 못하는 회사의 한계를 들면서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 ②

나쁜 소식을 기본 나쁘지 않게 전하기란 쉽지 않다. 불합격을 통보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한다. 위로와 격려의 문장을 넣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응원의 목소리를 담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곳도 있다. 몇몇 표현은 그럴 때 자주 쓰이다 보니 상투어가 돼버렸다. ②

2017년 인크루트 설문 조사에서 구직자들이 꼽은 ‘불편한 탈락 통보 문구’ 1~3위는 “귀하의 역량은 높이 평가됐다” “다음번에는 함께하기를 바란다” “귀하의 열정을 높이 산다”였다. 얼핏 보면 친절하지만 이런 불합격 통보가 역풍을 불러와 안내 방침을 바꾼 기업도 있었다. “귀하의 역량은 출중하나…… 불합격하였습니다”라고 했던 대기업은 회장의 트위터로 지원자가 항의 메시지를 남긴 뒤에 문구를 완전히 바꿨고, 꽤 긴 이메일을 보내던 다른 기업도 비슷한 반발을 겪고는 표현을 손봤다. ③

금호석유화학의 문자 메시지도 위로와 격려를 담았다는 맥락에서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취업준비생들이 받은 느낌은 ^{판판이었다} 판판이었다. “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지?” “서류 광탈(광속 탈락)인데도 그 회사가 좋아졌다” “내년에 여기 다시 지원하고 싶다”라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문자를 발송한 사람은 입사 3년 차 인사팀 직원이었다.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취준생 시절의 고충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다. 같은 말도 ^{315/212502} '아' 다르고 '어' 다른 미묘한 차이는
역시 공감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거였다.

그는 서류 전형 합격자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다음 단계
인 인·적성검사의 구성과 상식시험의 출제 경향을 안내했고,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할 신입사원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밝히
면서 "(...)한 분, 한 분 모두 금호석유화학그룹에 소중한 분들
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시험 당일에 햄버거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니 다른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시더라도 잠깐
들러서 식사하고 가십시오"라고 덧붙였다. ④

아까운 도시락



2015. 5월 5주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는 자기소개
부터 시작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섯 살 딸을 함께
^{함께} 얻었다고 했다.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작은 존재는 이 결혼에 대한 주변의 ① 만류를 불렀고, 글쓴이 역
시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었다고 고백했
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반복된 고민의 결론은 늘 같았다. 아이
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다. 주위의 어색한 시선
이 느껴질 때마다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칠} 품어야겠다는 의지가 ^{차라리} 솟
^{차라리} 았다 한다. 인연이란 게 정말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는 말수가 적었다. 다섯 살을 '미운
다섯 살'이라고도 하고 '유아 사춘기'라고도 하던데, 이상했

이때

12월 11일